



파주장단 DMZ 벌꿀 직거래 한마당 대성황

비무장지대(DMZ)에서 생산된 청정벌꿀 직거래 행사인 ‘파주장단 DMZ 벌꿀 직거래 한마당’이 6월 21일부터 이틀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에서 열려 1만3천여명이 방문해 2300만원의 양봉제품을 판매하는 등 성황리에 종료 되었다.

웰빙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카시아 및 밤꿀, 화분, 로얄제리와 프로폴리스 등을 시중가보다 10%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여 소비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양봉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.

이번 행사에는 생태관찰용 투명벌통전시, 꿀 따기, 벌 붙이기, 꿀차, 꿀떡시식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와 시식행사가 펼쳐졌으며, 특히 파주시양

봉연구회 총무인 안기실씨(40세)는 여왕벌로 벌을 유인하여 약 6만여 마리를 몸에 붙이는 벌 인간 퍼포먼스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.

파주시양봉연구회장 이종선씨는 “이번행사로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파주벌꿀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소비촉진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”며, “앞으로도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고품질의 벌꿀을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”고 말했다.

파주에서 생산된 청정 양봉제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진각에 설치된 파주시농특산물홍보관(☎031-953-9500)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.